

기고

담양의 미래를 지키는 힘,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이탈은 이미 담양군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교육 기반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지역을 떠난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의 기능도 무너진다. 반대로, 교육에 투자한 지역은 아이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정착한다. 실제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담양도 이제는 교육을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바라보고, 과감한 전환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 출발점으로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담양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의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 비율은 9.1%로, 전라남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도 최근 10년 사이 30% 이상 줄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다. 이미 관내 작은학교 상당수가 폐교 또는 통폐합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지탱하는 핵심 공간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은 활력을 잃고, 결국 지역은 공동화된다. 지역 주민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지역 소멸은 현실이 된다.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양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담양에서 배우고 살아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담양의 교육을 선택하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바로 '담양군 미래교육재단'이다.

이 재단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다. 담양형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통합교육,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진로 중심 교육, 실습형 체험학습 등 담양 고유의 교육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이 설립되면 행정과 교육현장,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회성 행정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에게는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믿을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교사와 마을은 협력하는 교육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담양의 교육이 외부에 알려지면, 도시 가정의 농촌유학 수요나 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작은학교를 살리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구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재단은 지금까지 제대로 교육에서 소외됐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담양에도 학교 밖 청소년과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담양군 미래교육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준비, 심리상담, 진로 설계, 학습 멘토링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에서 단 한 명도 배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역 교육의 책임이자 가치다. 지금이 바로 담양 교육의 전환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 담양의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자라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담양을 교육의 이유로 선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 시작이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이다.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지역민이 살아남는다. 사람을 키우는 지역만이 성장한다. 담양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담양군의회 의원 박준엽

예수 시대에 예수를 마땅치 않아 했다. 바리새자들이, 어느날 해성처럼 나타난 예수께서 지극히 올바른 방향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제도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몸부림치면서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난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마태오 15,14)라고 설교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이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파들의 행패로. 그들의 칼날은 사면팔방으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언더전용과 언더친용 등으로 분화되어가면서 자기들끼리도 분과 싸움을 벌였다. 거기에다 김건희의 무소불위 행패는 또한 더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폐족이 된 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닐까.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이재명 정부는 더더욱 긍정적이고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고 선언했다. 때문에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완전히 폐족을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조국 전 대표는 물론 그의 부인과 자녀까지 도둑 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이처럼 어마어마한 잔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선포했던 것이 아닐까. 2024년 12월 3일 밤에, 참으로 어이없는 폭거였다.

선포내용도 철두철미하게 극악적으로 유치한 악취를 품어냈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

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유치 발랄한 내용으로. 하지만 이런 잔인무도한 계엄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결국 국회 청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 0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회 전원합의체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오늘날 좋은 정치를 펼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시 1순위 적결 대상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최악의 결말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의 총성과 3인방도 돌아섰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더더욱 윤석열을 옥죄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5%였다.

반면에 윤석열 구속 찬성 지지율은 71%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9%였다. 검찰 개혁 찬성은 58%이고 반대는 29%였다. 작금의 민심이 이렇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더더욱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긍정적이고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합치게 나아가길 바란다. 그래서 훗날 가장 훌륭한 정치인의 표상이 되길 바란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현장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사의 갈림길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골든타임은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거나 장애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장응급처치입니다.

까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뜻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CPR),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출혈 환자의 지혈 처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에 비해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며, 후유증 또한 줄어듭니다.

특히 심정지의 경우,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

히 낮아집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평균 710분. 결국 가장 먼저 현장에 있는 시민의 행동이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공동으로 '생명을 잇는 첫 손길'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생부터 직장인,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누군가 하겠지'라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현장응급처치는 의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시민의 의무입니다.

현장응급처치, 우리가 함께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 선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임찬호

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음력 6월 24일)

48년생은 기쁨이 풍성함을 가져보자.60년생 애뜻함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72년생 정상이라는 목표 눈으로 보여진다.84년생 오래두고 깨내질 자랑이 생겨나.96년생 최고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49년생 머무르지 않는 나그네가 되어보자.61년생 손톱에 못 달고 막힘 없이 가보자.73년생 든든한 동반자와 손발을 맞춰보자.85년생 마음가짐에 경건함이 우선이다.97년생 수줍은 객으로 허락을 받아내자.

50년생 관해하는 고생 모양만 빠져간다.62년생 굴곡 많은 사연이 아기로 남겨진다.74년생 처음인 만남 사랑꽃이 피어진다.86년생 이루고자 하는 꿈 날개가 달려진다.98년생 분위기 전환하는 청춘을 들어보자.

51년생 버리고 비워내야 진짜와 만나.63년생 아름다운 약속 강등 도배가 된다.75년생 적재적소 도움하리 속여 받아내자.87년생 멋으로 하지마라. 진심만 보여주세요. 99년생 좋은 이웃들이 급한 불을 꺼준다.

52년생 책임감과 무게 한결 가벼워진다.64년생 차고 넘치는 공간 부자가 되어간다.76년생 크고 화려한 무대 세상이 달려진다.88년생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은 남겨진다.00년생 거슬리는 간섭 정답임을 알아내자.

53년생 순서가 아니면 기다림을 더해보자.65년생 서로 상호 작용 주고 받아야 한다.77년생 행복이라 쓰여진 소식을 들어보자.89년생 다시 생각하고 고민을 더해보자.01년생 뿌듯한 성취감 눈물까지 보여진다.

54년생 고맙고 감사한 인연들을 만나보자.66년생 좋은 점만 보고 나쁜 점을 지워내자.78년생 으뜸 성적표로 콧대를 높여보자.90년생 출진담 만큼의 대가를 받아보자.02년생 끈기 있는 모습이 겸수로 매겨진다.

55년생 원망도 외로움도 바람에 실어내자.67년생 격렬한 시기에 예정 표현해보자.79년생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져보자.91년생 절대 겸손으로 불이익을 막아내자.03년생 주저하고 싶었던 부진이지니.68년생.

56년생 치우침이 없이 저울처럼 공평하다.68년생 임무완수 후에 편안함에 빠져보자.80년생 투박했던 관계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92년생 혼자만의 비밀 땅으로 묻어내자.04년생 주변이 스승이다. 열심히 배워라.

57년생 조심스러운 예측 날개 없더라도.69년생 자부 웃음이나는 경사를 맞이한다.81년생 노력은 기성하다 결과는 미흡하다.93년생 구해된 대접 비탄길을 걸어보자.05년생 치솟는 유명세 찾는 곳도 많아진다.

58년생 쉽다 하는 병심 후폭풍이 크게 온다.70년생 주춤거리려는 용기 기회는 달아난다.82년생 언제나 그 자리 초심을 지켜주세요.94년생 오래묵은 속제 빠르게 정리하자.06년생 속삭이는 유혹 거짓이라 단정하자.

47년생 시끄러운 장소 도망치려 해야 한다.59년생 입도적인 승리 차별화를 보여주세요.71년생 공허했던 가슴 살림이 채워진다.83년생 두말 필요 없는 계안을 들어보자.95년생 지하는 습관 잘못임을 알아내자.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xpressway system.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